

제81차 국제대담회 연차회의 참관기

GS건설 부장 | 심우섭
wshim@gsconst.co.kr



1. 개요

제81차 국제대담회 연차회의는 2013년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렸다. 회의 주제는 “Changing Tim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 Infrastructure Management”로서 각종 공공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우리나라의 관심사와도 잘 맞는 시의적절한 주제였다.

한국 대표단은 K-water와 한국대담회를 중심으로 총 15개 기관, 학교, 단체 및 기업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근래 파견된 대표단 중 가장 작은 규모로서 최근의 침체된 경기가 그대로 투영된 듯하였다.

2. 어떤 참관기가 되어야 할까

회의 參觀記란 모름지기 회의 내용이나 발표논문 등을 장황하게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독서의욕을 초기에 꺾어버리거나, ‘부푼 가슴을 안고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로 시작하는 여행 年代記를 늘어놓음으로써 가본 사람에게는 지루함을, 안 가본 사람에게는 질투를 유발 시켜야 하는 법이다.

이메일 몇 줄 쓰는 것이 글쓰기의 대부분인 나 역시 그보다 나올 수는 없겠으나, 이번 81차 대회 참가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주최측의 준비태세를 돌이켜 보고 또 차기 대담회 참가 및 개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제안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3. 미국의 준비- 그 본받을 점과 피할 점

가. 회의장 및 숙소

- ICOLD에서 지정한 공식 호텔인 시애틀 웨라톤 호텔은 시애틀의 다운타운에 있으며, 회의장도 같은 장소이다. 회의장이 호텔 2층에 마련되어 숙소와 회의장을 왕래하는 시간이나 교통편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아주 편리하였다.

- 다만 호텔은 한꺼번에 이천 명 가까운 참가자들이 투숙하니 과부하가 걸려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이런 점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았다.



나. 참가신청 및 등록

-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은 비교적 쉽게 잘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선택해야 할 옵션이 많



지 않아서인 것 같다. 신청마감일도 개최일에 임박할 때까지 여유를 주고, 또 일단 신청한 이후라도 옵션 변경이 자유로운 점도 고마운 일이었다. 또 신청 및 변경신청시 확인메일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전의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메일을 받을 때마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에 감사함을 느꼈다.

- 다만 홈페이지의 내용이 빈약하여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것은 개선해야 할 점인 듯.

다. 식사

- 미국에서는 호텔비에 아침밥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러나 다운타운의 많은 카페에서싼 가격에 다양한 식사와 커피를 팔고 있어 오히려 아침마다 다른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었다. 경제.경영분야의 베스트셀러 ‘관찰의 힘’의 저자 안 칩체이스는 “외국 문화를 느끼려면 그 나라의 아침을 체험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 점심은 회의장 로비에서 뷔페식으로 제공했는데 한꺼번에 많은 참가자들이 식사를 하려니 오래 줄서서 기다려야 하고 음식도 충분하지 않은 불편함이 있었다. 음식을 서서 먹는 것은 우리에게 원래 낯선 일이지만, 음식접시와 컵과 포크를 들고 서서 먹는 것은 현지인들도 어려운 일인 듯 했다.

라. 문화행사

- 특별히 문화행사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느 나라나 문화행사는 심혈을 기울여서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 중, 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행사 “컨텐츠” 위주인 반면, 이번 미국과 유럽에서는 행사 “장소”를 중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화행사 장소는 Seattle Art Museum(SAM)인데 일반인 관람시간 이

후에 대관을 해서 미술관도 관람하고 초청 공연도 감상하게 하였다. 전에 유럽에서는 와이너리나 박물관급의 역사적 건물에서 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 다소 생소하게 느낀 것은 음료쿠폰을 두 장씩 지급하는데 물이든 술이든 두 잔을 마시면 끝이라는 점이다. 아, 더 마시고 싶으면 한 잔에 7불씩 내고 마시면 된다는데... 미국 경제가 아직 회복이 안돼서일까, 아니면 술 많이 마시지 말라는 배려일까?

마. 행사 진행 및 안내

- 영어가 모국어인 것이 이들을 여유 있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일수록 느슨한 듯 하면서도 빈틈없는 것인지? 이전에 참가했던 많은 국가들은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고 전화 걸어대도 해결되는 것은 없고 사람들을 속절없이 기다리게 하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아마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감안한 준비태세가 잘 될수록 선진국인 것 같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 등록 데스크와 안내 데스크에는 아마도 참가자이자 자원봉사자가 안내를 하는 것 같았다. 학생들은 동원하기는 좋으나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여기서는 담당자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윈스톱으로 철저하게 안내해 주는 전문성이 인상 깊었다.

바. 개회식 초청강연- 행사와 세일즈의 연계

- 개회식 초청강연때 알래스카 부지사가 와서 미국의 마지막 프런티어인 알래스카주의 댐과 수자원에 대하여 강연을 했는데,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알래스카 주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에 외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사를 세일즈와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 아쉬운 것은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ICOLD에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라는 점이다. 기획의도가 좋아도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그뿐인 것을.

4. 관광

시애틀 다운타운은 걸어서 돌아다니기 좋을 정도의 규모에 볼거리가 몰려있고 다양한 관광상품이 있어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여기에 세 가지만 소개한다.

가. 수륙양용차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영화를 본 사람이나 안본 사람이나 ‘시애틀’과 ‘잠 못 이루는 밤’은 거의 짝을 이루는 숙어일 터인데, 미국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미국 전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인기 만점의 탈것을 탄다. 이름하여 “Ride the Ducks”. 덕이라는 놈은 2차 대전때 미군의 수륙양용 트럭인 DUKW을 잉여물자로 민간이 불하받아 관광산업에 투입한 것인데, 육지에서 시속 80킬로미터까지 달리고 물에 뛰어들면 5.5노트(10km/h)의 속도로 항해를 하는 기특한 녀석이다. 차타고 배타는 것이 뭐 그리 특별하랴만, 지붕만 있는 트럭+보트의 운전자 겸 가이드가 재미있게 리드를 하면 승객들이 모두 호응을 하여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며 시내를 가로지르는 것이 한 재미 한다. 유니언 호에 들어가 한 바퀴 돌 때 저 멀리 톰 행크스가

잠 못 이루던 보트 하우스를 보여 주던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 영화를 다시 한 번 보니 과연 그 집이 거기에!

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스타벅스 1호점, 그리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 앞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나왔는데 왜 또?

“Sleepless in Seattle”이 1993년에 처음 상영됐는데 지금까지도 시애틀을 대표하는 영화이면서 시애틀의 곳곳이 이 영화에 나온 후 관광객들의 순례지가 되었다고 한다.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시장은 물건구경보다 사람구경이 더 구경거리인데, 영화에서 톰 행크스가 걸어 내려가던 거리, 또 여자문제로 고민상담하던 식당 등이 다 시장 근처에 있다고.

- 그 시장거리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줄 서서 밀려들어가서 주문하고 사진 찍고 음료 받아서 돌아 나오는 의식을 끊임없이 거행하고 있다. 그 시장거리가 1번가라서 모퉁이에 1st 스트리트 스타벅스집이 있



1호점 내부와 범상치 않은 스타벅스 인어공주의 전신사진





는데 영어 잘하는 현지인들도 거기가 1호점인줄 알고 기념사진 찍고 커피 사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 Olympic National Park

올림픽 국립공원의 이름은 공원 가운데 있는 올림푸스산(2,428m)에서 왔으며, 그 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의 이름도 올림픽 반도이다. 시애틀에서 페리를 타고 퓨젯 사운드라는 해협을 35분간 건너간 후, 다시 차로 140킬로미터를 가야하는 곳이다. 시애틀의 명물 스페이스 니들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는 것도 좋지만 페리에서 보는 스카이라인이 더 좋아 보였다.

하루 종일 배타고 차타고 굵이굽이 산길을 올라간 끝에 Hurricane Ridge 방문객 센터에 오후 늦게 도착했다. 저 멀리 산꼭대기가 빙하에 덮여 있는데 옛날 사진과 비교하니 이젠 다 녹아서 빙하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산꼭대기에 만년설이 남아있는 정도로 보였다. 미국에서 지구 온난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씁쓸함이라니.



5. 한국대담회의 활동

가. 대표단 구성

● K-water

한국 대표단은 늘 그렇듯 K-water가 주축이 된다. 이번 연차회의에는 역대 최소인원인 총 5명이 참가했으나, 그 중에도 KNCOLD day 및 총회 참석차 오신 김종해 본부

장 외 1명을 제외하면 각종 회의 및 발표에 참여할 인원은 고덕구 원장 포함 3명밖에 되지 않는 초미니 대표단이었다.

● KNCOLD

이번 대표단의 다른 한 축으로는 한국대담회가 있다. 이순탁 수석부회장, 오병현 사무국장 외 여직원 2명 등 총 4명이 참가하여 발표, 회의, 행정업무, 전시부스 안내, 그리고 KNCOLD day 행사까지 그야말로 일인 다역을 해 냈다.

● 그리고 13개 기관

이전의 국제대담회 연차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 단체 및 기업들이 대체로 참여했으며, 물포럼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참가한 것이 눈에 띄는 일일 것이다. 부진한 경기와 국내사정으로 사기업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은 점이 아쉬운데, 특히 K-water의 적은 인원을 보완해 줄 기업체의 일손이 줄어서 더욱 아쉬웠다.

나. 대표단의 활동

● KNCOLD day

8월 14일 오후 한국 부스 앞에서 열린 KNCOLD day는 시작 전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분위기를 띄우고, 몰려든 각국 대표단에게 김종해 본부장, 이순탁 수석부회장, 그





이 많으나 더 세부적인 설명을 해 줄 자료도 인원도 없다.

● 사례 1: 가봉 대표단들은 우리의 수상태양광 발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자세한 자료도 없고 설명을 해줄 사람도 없어 애를 태웠다.

● 사례 2: 일본 부스에서는 전문적인 통역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두고 자신들의 기술을 세일즈하며, 준비된 자료보다 더 전문적인 자료는 돈을 받고 팔고 있었다.

우리 시공사와 용역사들은 의례적으로 자사 홍보 포스터를 게시했지만, 앞으로는 홍보가 사업 상담으로 이어지도록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참여와 부스 운영을 고민 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 대명회를 다시 보자

가장 하기 힘든 쓴 소리를 하겠다. ICOLD 참가는 놀러가는 여행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런 평가가 근거가 없지는 않았으나 시대의 물결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번 대람회 참가자들은 미국에 가서 호텔 방과 행사장 그리고 부스의 네 벽만 보고 온 사람들이 많다. 근로기준법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여덟 시간 근무하면 자유 시간이어야 마땅하나,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주 7일 근무를 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할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은 적은 것이다.

투자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 외국과 교류 없이 우리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기술적 쇄국정책(鎖國政策)이 아니겠는가?

이 재미없는 글을 여기까지 읽어 주셨다면, 이 마지막 말은 꼭 귀담아 들어주시어 여태까지 선배들이 쌓아온 공로탑에 계속 돌을 얹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많이!

